

# 2024 최종합격 수기

■ 제목: 33 기 합격수기

#기타#독학#인터넷 강의#단원화

## ■ 하루 학습 계획 및 생활 패턴

0기에서 2기까지는 아기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등원시키고 하원 3시 반까지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에 아기를 재우고 다시 새벽에 2-3시간 정도 공부시간을 확보하여 하루에 7시간 정도씩 공부하였습니다. 3기때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아침일찍부터 공부하고 저녁 6시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아침,점심을 때우고 4시쯤 커피를 먹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같은 스케줄로 움직였습니다. 계획은 처음에는 1달 단위로 세웠고 추후에는 1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웠으며 중간 중간 수정하였습니다.

## ■ 과목별 학습법 & 수강 강사 및 활용 교재

노동법: 김에스더 선생님 강의력, 수험적합적,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음. 과하지 않으면서도 쟁점을 빠트리지 않는 특징을 갖고 계십니다. 노동법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신만큼 학계이슈를 잘 알고 계시고, 설명을 쉽게 정말 잘 해주십니다. 전형적인 떠먹여주는 스타일이십니다. 0기 때부터 숙제를 내주시고, 블로그에 인증창구를 운영하십니다. 방학기간에는 스터디를 구성해주시고, GS 사이 사이에 전화상담을 운영하십니다. 전화 상담시에는 제 답안지를 직접 봐주시면서 제가 취하면 좋을 전략 및 공부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의 답안지 및 고민을 들으신 후에는 공부 구력이 짧고 모고 점수는 하위권이었기에 학설 등을 생략하고 답안지에 객쇄 표시 등을 통해서 구성을 달리하여 써보는 게 좋다고 하셔서 저는 과감하게 중요판례 위주로 가져갔습니다. 중간 중간 무료로 최신판례 특강을 열어주신 후 다시 보기 편하게 정리하여 GS 강의 때 배포해주십니다. 서론, 즉 쟁점의 정리를 쓰는 법을 강조하시고, 취지 및 판례 키워드를 살려서 쓰는 법을 잘 알려주십니다.민사소송법: 김광수 선생님 수업이 물흐르듯이 흘러가며, 수강생 소통이 정말 잘됩니다. 광사모가 왜 생기는지 알 정도로 선생님이 매력이 있습니다. 0기에는 기본서와 직접 쓰신 필기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십니다. 민소라는 과

목이 처음 접근하면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0기 때는 이해를 엄청 강조하십니다. 여기에서 이해란, 필기노트를 스스로 써볼 수 있는 정도의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바뀔 수도 있으나 1기때는 사례 목차잡기 10분 모고를 보십니다. 저는 이때만 해도 사례형 모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것 같지만, 채점평을 굉장히 꼼꼼하게 써주시기 때문에 강의-모고-채점 평으로 3번씩 다지기가 가능했던것 같습니다. 기본서로 수업했습니다. 2기때부터 본격 단문 + 사례 50분 모고를 쓰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사례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이때도 부족하긴 했으나 2기 중반부 와서 아 이런건가? 하는 순간이 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서를 강조하시고 사례집은 혼자 공부하는 용입니다. 3기때도 범위를 나눠주셔서 범위만큼 75분 모고를 보았습니다. 민소 범위가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에이급이라도 선생님이 조금만 들어서 내면 엄청 어려워지는 경험을 하면서 좌절도 하고 똑똑해지는 기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톡 및 동아 카페에서 질문창구를 운영하시는데, 답변이 정말 빠릅니다. 질문 정말 많이 했었는데, 어떤날은 보내는 순간 확인하셔서 놀랐던 경험도 있습니다.

## ■ 면접 준비 과정

3차 면접은 김광수 선생님이 보내주신 작년 면접자료를 토대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시 질문 등을 블로그 및 합격생들 카톡방에 공유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3차면접의 경우 어려운 질문도 나온다고는 하나, 성실하게 답변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여 크게 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면접관들이 저의 답변을 잘 들어주셨고 호응도 나쁘지 않았기에 면접 본 뒤에는 크게 불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방에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방의 경우에는 꼬리 질문이 이어졌다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3기에는 330면 필기 합격자 중에 329명이 합격하였기에 면접은 성실성의 평가정도라고 생각합니다.

## ■ 수험생활 중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

모든 수험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기존에 시험을 준비해본 구력이 없다면 시험공부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기를 키우는 입장이었고 책상에 앉는다고 바로 몰입이 가능하지는 않았기에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중요했는데, 초반에 공부할 때는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족한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물리적으로 바꿀 수 있지는 않았기에 스스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점차 공부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선생님께서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포기하는 사람을 핑계를 찾고"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계속 다짐했었습니다.

#### ■ 합격으로 이끈 나만의 학습 전략 KEY POINT

학습 전략을 딱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암기를 잘하고 이를 글로 풀어내야하기 때문에 암기력이 특출나지 않는다면 그냥 끊임없이 눈에 바르고 귀로 담고, 머리로 다시 짚어보고 말 또는 손으로 현출하는 연습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으니 인풋 보다 아웃풋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그나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현출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으로 알고 있다고 하여 손으로 쓰는 것 또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스터디, 백지복습, 블로그에 정리하기 등 다양할테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